

# 古代漢語 ‘焉’의 풀이에 대한 一考察

— 先秦·兩漢 시기를 중심으로 —

安 奇 燮\*

<目 次>

I. 들어가는 말	2. 풀이에 나타나는 문법상의 문제 분석
II. 虛詞詞典의 ‘焉’의 풀이에 대한 분석과 수정 試論	3. 품사 부여와 의미 파악상의 新思考
1. 詞典의 풀이 - 품사와 의미 항목	III.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古代漢語 중의 ‘焉’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종래의 풀이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새로운 기술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焉’은 하나의 단어로서 기능한다. ‘焉’은 현행 품사 분류에 따르면 代詞와 助詞로 대별되며, 이 체계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다른 품사를 부여한 경우도 있다. 다른 품사의 인정 여부를 제외하고도 내부의 설명에 적지 않은 모순이 존재한다. 대사·조사의 경계와 기능 및 정의에도 문법적인 문제가 없지 않은데, 대사·조사 하부의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된다. 지금까지의 복잡한 분류와 설명대로라면 언중(화자와 청자)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했을까? 다시 말해 그들이 의식하고 뇌 속에

\* 全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교수

저장하고 있던 사실일까? 풀이 내용은 이러한 본질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언중이 의식하지 못하는 변별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문법적인 의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언어의 본질이 본시 단일 음성과 단일 의미의 결합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언어는 음성상징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단어가 다른 단어와 변별되는 이유는 음성의 차이이다. 단음절 어휘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고대한어는 언어의 이러한 기본 변별 자질이 단어의 의미 경계를 확정하는 문법적 고찰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여긴다.

고대한어 문법 기술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착오가 많은 것 중의 하나가 虛·實 판단이다. 일정한 문법적 기준이 없이 ‘實’이니 ‘虛’이니 하고 말하기가 일쑤다. 宋代부터 관념상으로 ‘虛·實’ 개념을 사용하여 단어를 양분한 이래 형태론과 통사론에서 모두 특별한 분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여전히 관념상의 구분을 하고 있다. 《馬氏文通》에서 서구의 품사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虛’와 ‘實’에 배당한 것을 추종해 왔을 뿐 다른 특별한 문법적인 분류 기준이 강구된 바 없다. 전적으로 助詞로만 쓰이는 것들은 그것의 기능에 의거하여 허사로 간주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런데 두 가지 이상의 품사를 부여해 온 단어들, 특히 실사와 허사의 양쪽에 들어온 단어들은 기능과 통사상의 위치에 의해서 만으로 확연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직관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대사와 조사 양쪽에 드는 단어들은 패러다임을 바꾸면 왕왕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焉’도 그 중의 하나이다.

고대한어에는 굴절에 의한 단어의 형태 변화가 없고 통사 형식을 구별해 주는 굴절 표지도 없으며 단어의 첨가에 의한 통사 형식도 극히 드물다. 이로 말미암아 근거 삼을 바의 문법 표지, 즉 기능이나 통사구조와 대응되는 명확한 변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통사 관계를 나타내는 굴절 형식 내지 첨가 형식의 형태 표지가 없기 때문에 독립된 단어 자체를 문법 표지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주관과 직관이 과다하게 개입하기 쉽다. 그렇지 않아도 문법학자의 관점에는 본시

직관과 주관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에 의거하여 불완전하나마 분석의 틀을 마련하고 그것에 의하여 관찰한다.

고대한어의 경우 독립된 단어의 부류인 虛詞의 기능을 파악하는 방법은 문장 전체의 의미에 의거하여 허사로서의 기능을 추론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지라도 문장 중의 다른 어휘 의미의 조합에 의거하여 특정 단어에 대한 虛·實을 판단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각 종의 문법서와 이를 반영한 虛詞詞典류는 물론이고 관련 논문에서도 착오를 재생산하고 있다. 특히 연구 면에서나 교육 면에서나 영향력이 매우 큰 허사사전의 풀이에는 虛·實을 비롯한 품사[詞類] 분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어휘의미[詞義] 항목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견된다.

‘焉’의 풀이에 드러나는 문제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實詞인 代詞와 虛詞인 助詞의 경계, 둘째, 代詞 영역의 의미 항목에 대한 풀이, 셋째, 助詞 영역의 기능의 종류가 그것이다.

현재의 기술 체계에서 조사로 분류되는 고대한어 중의 대표적인 어휘들은 모두 현대한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에 상응하는 조사가 두루 생겨나지도 않았다. 엄격하게 1:1의 대응 관계를 보이는 조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한어 조사의 기능이 마치 현대한어의 어떠한 어휘 또는 어휘의 조합이 나타내는 의미나 기능에 상응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또 고대한어의 하나의 조사가 상이한 다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것의 설명에 동원한 현대한어 각각의 단어가 다수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염두에 두지 않은 듯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언어의 본질은 음성상징이다. 하나의 음성에 하나의 의미가 결합됨을 바탕으로 개별 단어의 의미가 성립한다. 하나의 소리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려면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의 의미 또는 기능에 포괄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마땅하다. 우연의 일치로 同音異義의 어휘가 존재하는 현상은 어느 언어에나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 의미의 확장 내지 변화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원인

이 있기 마련이다. 단어 내부의 변화도 있겠지만 그 경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고대한어 대부분의 實詞류는 품사 구분이 되지 않는다.<sup>1)</sup> 구분하기로 한다면 결국 거의 모든 실사류가 명사·동사·형용사를, 때로는 부사까지를 겸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의미의 확장이나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근거는 주로 다른 단어와의 조합, 즉 통사상의 의미 관계 또는 기능에 의해 찾게 된다. 이것마저 없으면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구분할 이유들이 없다면 가능한 한 하나의 의미로 관통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실제 언어 현상과 부합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의미 경계의 파악이라야 문법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 현대한어의 대응 어휘(또는 다른 언어의 대응 어휘)를 찾아 그것을 고대한어 특정 단어의 의미로 여기는 바람에 적지 않은 고대한어 어휘가 참으로 어려운 것으로 기술되고 말았다. 이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현실언어로 존재할 수 없는 언어로 만들어 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허사사전의 풀이에 반영된 문법적인 내용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언어의 실상에 근접한 기술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焉’의 풀이에 관한 문법적인 고찰의 시기 범주는 先秦·兩漢으로 제한한다. 이 시기 내의 변화도 있을 수 있으나 논외로 한다. 이후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공시대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II. 虛詞詞典의 ‘焉’의 풀이에 대한 분석과 수정 試論

### 1. 詞典의 풀이 - 품사와 의미 항목

현재의 고대한어 문법서에서의 공통된 서술 내용은 대부분 고대한어허

1) 이에 대해서는 졸고 <古代漢語 實詞類 품사 분류의 非文法性에 관하여>(《中國人文科學》 43, 2009.12)에서 상세히 논하였다.

사사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북경대학출판사에서 낸 《古漢語虛詞詞典》(1996)<sup>2)</sup>에 담긴 내용을 표본으로 삼아 논술하고 필요에 따라 商務印書館의 《古代漢語虛詞詞典》<sup>3)</sup> 및 《辭源》<sup>4)</sup>의 내용과 비교하여 살피기로 한다. 《古漢語虛詞詞典》의 ‘焉’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先秦·兩漢의 문헌 예만을 취하였다.]

㉔ 疑問代詞

一. (이것을) 써서 사람을 묻는다. 뜻은 곧 ‘誰’(누구)이다. 목적어가 된다.

① 莊公病，將死，謂季子曰：“寡人即不起此病，吾將焉致乎魯國？”季子曰：“般也存，君何憂焉？”(《公羊傳·莊公32年》)

(장공이 병들어 장차 죽게 되자 계자에게 일러 말했다. “과인이 곧 이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내 장차 노나라를 어디에[→어느 사람에게] 이르게 해야[→맡겨야, 다스리게 해야] 하겠는가?” 계자가 말했다. “般이 있는데 군주께서는 무엇을 근심하십니까?[비교: 뭐로{무엇 때문에} 어디{누구에게 줄까}]를 걱정하십니까?])

② 焉請哉？請乎應上公。(《穀梁傳·定公元年》)

(어디에[→누구에게] 청할까요? 응상공에게 청해야지요.)

③ 周道衰微，禮樂陵遲，文武既墜，吾將焉歸？(《樂府詩集·琴曲歌辭·甌操》)

(周왕조의 [치국의] 길이 쇠미하여 예악이 쇠락하고 文武가 이미 추락하였으니 내가 장차 어디에[→누구에게] 귀의할꼬?)

二. 사물을 묻는다. 술어나 보어가 된다. 뜻은 곧 ‘甚麼’이다.

① 堯舜禹湯文武焉所從事？曰從事兼，不從事別。兼者，處大國不攻小國。(《墨子·天志中》)

(요·순·우·탕·문·무왕 등은 어디가[→무엇이] 좇아서 일로 삼은 바[중사한 바]였습니까? 겸하여 존재하는 것[함께 하는 것]을 좇아 일로 삼고 구별하는 것[나누는 것]을 좇아 일로 삼지는 않았다고 하지요. 겸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큰 나라에 처하여 작은 나라를 치지[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王海棻，趙長才，黃珊，吳可穎 共編。

3) 1999.2. 초판(2001.8. 第4次 인쇄).

4) 商務印書館，1987.10. 香港第1版。

② 桀·紂·幽·厲焉所從事? 曰從事別, 不從事兼. 別者, 處大國則攻小國.  
(《墨子·天志中》)

(길·주·유·여·왕등은 어디가[→무엇이] 좇아서 일로 삼은 바[중사한 바]였습니까? 구별하는 것[나누는 것]을 좇아 일로 삼고 겸하여 존재하는 것[함께 하는 것]을 좇아 일로 삼지는 않았다고 하지요. 구별하여 나눈다는 것은 큰 나라에 처하여 바로 작은 나라를 치는[공격하는] 것입니다.)

③ 欲仁而得仁, 又焉貪?(《論語·堯曰》)

(어질고자 하면 어짊을 얻어야지 또 어디서[→무엇을] 탐하겠는가?)

三. 장소를 묻는다. 뜻은 곧 ‘哪裏’, ‘何處’이다. ‘焉’의 장소 의미가 허화되면 정도를 물을 수 있다. 뜻은 곧 ‘甚麼程度’(어느 정도)이다.

(1) 목적어가 된다.

① 天下之父歸之, 其子焉往?(《孟子·離婁上》)

(천하의 아버지들이 그[周 문왕]에게 귀의하는데 그의 자식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② 文侯將出, 左右曰: “今日飲酒樂, 天又雨, 公將焉之?” 文侯曰: “吾與虞人期獵, 雖樂, 豈不一會期哉?” 乃往.(《戰國策·魏策一》)

(문후가 나가려 하자 신하가 말했다. “오늘은 술을 마셔서 즐기셨고 하늘에서는 또 비가 내리는데 공께서 장차 어디를 가시려 하십니까?” 문후가 “나는 虞人과 더불어 사냥하기로 약속했으니 비록 즐겼으나 어찌 약속대로 한 번 만나지 않겠는가?” 하고는 곧 갔다.)

③ 北郭驪沐浴而出, 見晏子曰: “夫子將焉適?” 晏子曰: “見疑于齊君, 將出奔.”(《呂氏春秋·節士》)

(북곽소가 목욕을 하고 나와서 안자를 보고 말했다. “선생님께서 어디를 가시려 하십니까?” 안자가 말했다. “제의 군주에게 의심을 받았으니 장차 나가 달아나야겠네.”)

④ 曰: “殷甚亂矣.” 武王曰: “其亂焉至?” 對曰: “讒慝勝良.”(《呂氏春秋·貴因》)

(말했다. “은나라가 심히 어지럽습니다.” 무왕이 말했다. “그 어지러움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대답하여 말했다. “참소하고 사특한 사람이 선량한 사람을 이깁니다[선량을 능가합니다.]”)

(2) 부사어가 된다.

① 以君之力, 曾不能損魁父之丘, 如太行王屋何? 且焉置土石?(《列子·湯

問》)

(당신의 힘을 가지고서는 일찍이 피부의[피부 같은] 언덕도 덜어내지[헐어내지] 못했는데 태행산 왕옥산 같은 것은 뭐가 되겠소[→어떻게 하겠소]? 또 흙과 돌은 어디에 둘 것이오?)

四. 조동사 ‘得’·‘敢’·‘可’·‘能’·‘足’의 앞에 쓰여 반문을 나타낸다. 뜻은 곧 ‘怎’·‘哪裏’이다.

① 晉楚無信, 我焉得有信?(《左傳·宣公11年》)

(진과 초에 신의가 없는데 내가 어디[→어떻게, 어찌] 신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

② 吳人焉敢攻吾邑?(《呂氏春秋·察微》)

(오인들이 어디[→어떻게, 어찌] 감히 우리 읍을 치겠는가[공격하겠는가]?)

③ 宣王曰: “嗟乎! 君子焉可侮哉?(《戰國策·齊策四》)

(선왕이 말했다. “아아! 군자는 어디[→어떻게, 어찌] 모독할 수 있겠는가?)

④ 今夫豎刁, 其身之不愛, 焉能愛君?(《管子·戒》)

(지금 저 豎刁는 그[자기] 몸도 아끼지 못하는데 어디[→어떻게, 어찌] 군주를 아낄 수 있겠습니까?)

⑤ 且夫齊楚之事又焉足道哉?(《史記·司馬相如列傳》)

(또 저 제와 초의 일은 또 어디[→어떻게] 말하기 족하리오?!)

㊤ 代詞

앞글에 나오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하여 대신한다[指代]. 목적어가 된다. 뜻은 곧 ‘他’·‘它’이다.

① 信則人任焉.(《論語·陽貨》)

(미더우면 곧 남이 그에게 [일을] 맡긴다[그를 임용한다].)

㊤ 兼詞

문말에 쓰여 介詞 ‘於(于)’와 代詞 ‘是’·‘之’ 등의 작용을 겸하여 갖는다. 뜻은 곧 ‘在這裏’·‘向他們’·‘比這個’ 등이다.

① 制, 巖邑也, 虢叔死焉.(《左傳·隱公元年》)

(制는 험준한 읍인데, 虢숙이 거기[그곳]에서 죽었다.)

② 長沮桀溺耦而耕, 孔子過之, 使子路問津焉.(《論語·微子》)

(장저와 결익이 나란히 밭을 갈고 있는데, 공자가 거기[그곳]를 지나다

가 자로를 시켜서 그들에게 나무더를 묻게 했다.)

③ 今宋人弑其君，罪莫大焉。(《國語·晉語五》)

(지금 송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군주를 시해하였는데, 죄가 그[그것]보다 큰 것이 없다.)

㉔ 助詞

一. 어기조사로 쓰여 서술문 끝에 놓이면 뜻이 곧 ‘了’이다. 의문문 끝에 놓이면 뜻은 곧 ‘呢’이다. 추측문 끝에 쓰이면 뜻은 곧 ‘吧’이다.

① 我二十五年矣，又如是而嫁，則就木焉。(《左傳·僖公23年》)

(내가 25세가 되었는데 또 이와 같이 해서[다시 25년을 지나서] 시집을 간다면[개가한다면] 곧 나무[棺木]에 나아가게[들어가게] 될 것이다.)

② 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則牛羊何擇焉?(《孟子·梁惠王上》)

(왕께서 그것이 죄가 없는데도 사지로 나아가는 것을 측은하게 여기셨을 것 같으면 곧 소와 양에서는[가운데] 무엇으로[→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二. 문중에 쓰여 제시 정돈[提頓]을 나타낸다.

① 南方有鳥焉，名曰蒙鳩。(《荀子·勸學》)

(남방에 새가 있었는데 이름을 몽구라고 하였다.)

三. 목적어의 전치 표지로 쓰인다.

① 我周之東遷，晉鄭焉依。(《左傳·隱公6年》)

(우리 주나라가 동천하면 진과 정을 의지한다[비교: 진과 정이 의지가 된다].)

② 《鄭書》有之曰：“安定國家，必大焉先。”(《左傳·襄公30年》)

(정서에 그것이 있는데, “국가를 안정시키려면 큰 것[大族]을 우선시해야[비교: 큰 것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㉕ 語綴

부사·형용사의 끝에 쓰여 모종의 정태[情態]를 나타낸다.

① 且年未盈五十，而諄諄焉如八九十者。(《左傳·襄公31年》)

(또 나이가 아직 50도 차지 않았는데 수다스러운 것이 8,90과[8,90이 된 사람과] 같다.)

② 神農·虞·夏忽焉沒兮。(《史記·伯夷列傳》)

(신농·우·하는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 2. 풀이에 나타나는 문법상의 문제 분석

### 1) 품사의 종류 문제

㉔ ‘焉’字에 대한 최상위의 구분이 疑問代詞·代詞·兼詞·助詞·語綴인데, 語綴(詞綴, 여기서는 後綴[=詞尾] 즉 접미사임)은 단어의 층위가 아니라 단어의 구성 성분인 형태소[詞素, 語素]이므로 ‘字’의 풀이에는 들 수 있으나, 단어[詞]의 풀이에는 들 수 없다. 그래서 이 語綴의 경우를 제외하면 ‘焉’을 疑問代詞·代詞·兼詞·助詞의 4가지 품사를 갖는 단어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語綴’이라고 명명했다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造語[構詞] 성분으로 여긴다는 것인데, 단어와 대등한 층위에 배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부사·형용사 끝에 쓰여’ ‘모종의 情態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여 매우 혼란스럽고 무책임함을 보인다.

商務印書館의 《古代漢語虛詞詞典》에서는 이것을 접미사로 보지 않고 ‘助詞’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助詞’라는 품사명을 부여하고 있는 ‘焉’의 기능에 대해서는 ‘語氣詞’라는 별개의 품사명을 부여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사전은 ‘焉’의 품사로 ‘代詞’·‘語氣詞’와 ‘助詞’를 설정한 외에도 ‘副詞’·‘連詞(접속사)’를 더 두고 있다. ‘焉’의 품사를 5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이다.

‘忽焉’·‘喟焉’·‘諄諄焉’ 중의 ‘焉’은 현재 접미사로 여기는 것이 대세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단어로 여겨 부사·형용사·동사 뒤에 놓여 ‘상태’를 나타내며 현대한어의 ‘地’·‘然’·‘着’·‘似的’·‘如……狀’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의 ‘焉’을 독립된 단어로 여길 것인가 형태소의 하나인 접미사로 여길 것인가는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어휘론[詞彙學]에서조차 그러하다. 그저 現代漢語 중의 접미사의 형태에 비추어 접미사로 여겨왔다.

이 책에서처럼 독립된 단어로 여긴 근거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이러한

관점을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고대한어에서 이 ‘焉’과 비슷한 쓰임을 보이는 것에는 ‘然·若·如·爾’ 및 ‘乎’ 등이 있다. ‘然·若·如·爾’는 동사·형용사·동사 뒤에 부가되어 쓰이지 않을 때 ‘그러하다(그와 같다), 이러하다(이와 같다)’로 대표되는 의미를 지닌다. 이 경우 모종의 상태를 형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다른 동사·형용사·동사에 뒤따를 때 의미상 이러한 성질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고 다른 단어에 부가되어 앞의 단어가 지닌 의미를 반복 확인하여 줌으로써 뜻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에 동원된 현대한어 ‘地’·‘然’·‘着’·‘似的’·‘如……狀’의 대부분이 단어로 간주되고, 이것들의 의미를 한국어의 ‘~하게 그렇다(그렇게, 그렇게 하다)’로 풀면 역시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스럽다’류로 풀다면 접미사가 될 것이다. 의미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소위 ‘虛化’라는 잣대를 들이대도 석연찮은 부분이 남기 때문이다. 과연 독립된 단어로 쓰이던 것이 어느 시기에 이르러 접미사화하였는가 또는 애초부터 단어와 접미사로의 쓰임이 공존하였는가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현대한어에서는 이러한 ‘焉’은 사라졌고 ‘然’이 대표하며 ‘然’이 단독으로 단어로 쓰이는 예가 없어졌기 때문에 접미사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생각하면 과거 어느 시기에 접미사화 하였다는 설을 배제할 수는 없다.

‘然·若·如·爾’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실사류에 속했던 것과는 달리 ‘乎’는 조사로서 오직 허사로 간주된다. ‘焉’은 그 중간이라고 할 수 있다. ‘焉’은 분시 대사였기 때문이다. ‘그’라는 것이 의미의 중심이 되는 것은 같지만 다른 단어의 뒤에 부가될 때 ‘然·若·如·爾’의 경우와 똑같이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런데 ‘然·若·如·爾’와 ‘焉’ 및 ‘乎’가 같은 類의 단어 뒤에 놓이고(漑然·欣欣然·沃若·忽若·婉如·死如·申申如·率爾·莞爾·忽焉·諄諄焉·寂乎·巍巍乎 등) 때로는 이것들이 ‘喟然·喟焉’, ‘忽然·忽焉’ 등과 같이 동일한 글자 뒤에 나타나 비슷한 기능을 보임으로써 분시 성질이 다른 세 부류가 공히 유사한 기능 성분이 되었다고 말할 여지가 있게 되었다. 이것이 造語 성분일 따름인 접미사로 간주할 근거가 되

있던 것 같다. 그럼에도 고대한어에서는 각각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도 있어서 논의는 완결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焉’이 단어냐 접미사냐 하는 문제는 후일의 또 다른 연구 대상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들 간에 공통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떠한 상태를 ‘강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焉’이 ‘之’보다 강한 대사이고 지시하는 내용이 없이 허화되어 조사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역시 ‘之’보다 강하여 강조의 기능을 갖는다는 성질은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전의 조사 항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 즉, 동사·형용사의 뒤에 쓰여서 ‘之類’·‘等’으로 번역할 수 있는 ‘屬類’를 나타낸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彼國錯者, 非封焉之謂也, 何法之道, 誰子之與也.”(《荀子·王霸》) 중의 ‘封焉’에 대해 ‘疆界를 획분하는 따위’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아닌 것 같다. ‘焉’은 강조의 기능을 하는 조사에 속하여 ‘저 나라가 어그러진 것은 강계를 나눈 것을(땅을 分封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로서 ‘封’을 강조하고 있을 따름이다.

상무인서관의 허사사전에서 ‘연사’로 본 예는 다음과 같다.

聖人以治天下爲事者也。必知亂之所自起, 焉能治之; 不知亂之所自起, 則弗能治.(《墨子·兼愛上》)

(성인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가지고 일로 삼음에 있어서, 반드시 혼란이 스스로 일어나는 바를 알아야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고, 혼란이 스스로 일어나는 바를 알지 못하면 곧 다스릴 수가 없다.)

君爲政, 焉勿鹵莽. 治民, 焉勿滅裂.(《莊子·則陽》)

(군주가 정치를 함에는 경솔함이 없어야 하고, 백성을 다스림에는 지리 멀렬함이 없어야 한다.)

전후 문맥에 의하여 ‘연사’로 여긴 것 같다. 특히 “必知亂之所自起, 焉能治之; 不知亂之所自起, 則弗能治.”의 경우, 같은 문맥을 지닌 전후 구성 부분에 가운데 뒤의 문장 중에 ‘則’이 쓰인 데 착안하여 앞의 ‘焉’도 이와 같은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연사로 여긴 것이다. 이는 명확한 착각이

다. 구두를 잘못 댄 것이다. ‘必知亂之所自起焉, 能治之’로 읽어야 옳다. ‘焉’은 역시 앞 말을 강조한다. 뒤의 ‘不知亂之所自起’와 상대해서 語義의 초점이 됨을 나타냈다. 여기조사이다. 뿐만 아니라 ‘則’은 연사가 아니라 부사이다. 고대한어에서 각종 통사상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데 기본적으로 접속표지, 특히 접속사는 필요조건이 아니다.<sup>5)</sup> 두 번째 예문도 “君爲政焉, 勿鹵莽. 治民焉, 勿滅裂.”로 읽어야 한다.

《辭源》에서는 ㉠새의 이름(鳥名)을 뜻하는 명사 외에 7개의 항을 두어 ‘焉’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품사를 명명한 것이 ㉡‘代詞, 猶言“之”’, ㉢‘連詞, 猶言“乃·則”’, ㉣‘語氣助詞’ 등이고, 품사를 명명하지 않은 것으로는 ㉤‘安·何, 猶今謂“哪裏”’, ㉥‘猶言“於此”’, ㉦‘猶言“是”’, ㉧‘猶言“於”’ 등이며, ㉨‘詞尾, 猶言“然”’이 있다. ‘安·何’는 의문대사이니 ‘㉡대사’ 아래 두면 된다. ㉨‘詞尾’는 북경대학출판사 허사사전의 ‘語綴’에 해당한다. 단어가 아니다. ㉥‘猶言“於此”’는 같은 사전의 ‘兼詞’에 해당한다. ㉦‘猶言“是”’의 예문은 같은 책 조사 항의 도치 표지에 해당한다. ㉠항의 實詞를 제외하면, 북경대학교출판사의 허사사전과 비교할 때 상무인서관의 허사사전에 있는 ㉤항[연사]과 ㉧항의 ‘猶言“於”’만 추가된 것으로서 나머지는 같다고 할 수 있다. ㉧항의 예는 “人莫大焉亡親戚君臣上下.(『孟子·盡心上』)” 같은 것으로서 문맥에 의해 ‘焉’을 개사(전치사) ‘於’로 여겼다. ‘於’는 개사가 아니다. 이 ‘焉’ 역시 ㉣항의 여기조사에 속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하기로 한다.

㉣ 두 사전의 더 큰 차이점인 부사와 연사 기능의 유무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사·연사 기능은 인정할 수 없다. 副詞 항에는 앞에서 예시한 북경대학출판사刊 사전의 ‘疑問代詞’의 제四항의 예문이 모두

5) 고대한어의 통사적 특징과 접속표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기섭·김은희의 <고대한어 ‘而’의 連詞性에 대한 의문 -先秦·兩漢 시기를 중심으로->(《中國人文科學》 51, 2012.8)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들어 있다. “조동사 ‘得’·‘敢’·‘可’·‘能’·‘足’의 앞에 쓰여 반문을 나타낸다. 뜻은 곧 ‘怎’·‘哪裏’이다.”라고 한 것과 거의 똑같은 설명을 하고서 품사만 ‘副詞’로 정한 것이다. 북경대학출판사의 허사사전에서 ‘의문대사’로서 ‘장소’를 나타낸다고 한 것 가운데서도 ‘반문’을 나타내는 문장에 해당한다. 고대한어에서 품사와 문장 성분 간에 엄격한 대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의적 판단에 의한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부사어가 되는 단어는 ‘부사’에 그치지 않고, 실사류의 품사를 나누기로 할 때의 명사(수사·양사 포함)·동사·형용사·대사도 모두 부사어가 될 수 있다.<sup>6)</sup> 그러

6) 다음은 실사류의 각 품사가 부사어가 됨을 보이는 예이다.

● 부사

[將] [必] 國將亡, 本必先顛而後枝葉從之. 《左傳·閔公元年》(나라가 장차 망하려 하면 뿌리가 반드시 먼저 무너지고 뒤에 지엽이 그것을 따른다.)

[乃] 怠慢忘身, 災禍乃作. 《荀子·勸學》(태만은 몸을 잊게[망치게] 하여, 재화[재앙과 화]가 곧 생긴다.)

● 명사

[始] [兄] 王陵者故沛人, 始爲縣豪, 高祖微時兄事陵. 《史記·陳丞相世家》(왕릉은 옛 패현 사람으로 처음에는 [그] 현의 호협이었는데, 한 고조가 미천하였을 때 왕릉을 형님처럼 섬겼다.)

[北] [東] 於是信謂廣武君曰: 僕欲北攻燕東伐齊何若而有功? 《史記·淮陰侯列傳》(이에 韓信이 廣武君에게 물어 말했다. 제)가 북으로는 燕을 공격하고 동으로는 齊를 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공이 있겠습니까?)

[四] 齊王四與寡人約 四欺寡人. 《史記·蘇秦列傳》(제의 왕이 네 번 과인과 더불어 약속을 하고 네 번 과인을 속였다.)

● 동사

[踞] 足下必欲誅無道秦 不宜踞見長者. 《史記·高祖本紀》(당신께서 꼭 무도한 진나라를 베기를 바라신다면, 걸터앉아 위사람을 접견하심은 마땅치 않습니다.)

● 형용사

[新] [急] 趙太后新用事, 秦急攻之. 《戰國策·趙策》(조태후가 새로 섭정하자 진나라가 급히 그 나라를 공격하였다.)

[高] 毛羽未成, 不可以高飛. 《史記·蘇秦列傳》(털과 깃이 아직 완성되지 않으면 높이 날 수가 없다.)

● 대사

[斯] 季文子三思而後行, 子聞之曰: 再斯可矣. 《論語·公治長》(계문자는 세 번 생각한 뒤에 행동하였다. 선생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두 번이면 이것으로 된다.)

므로 ‘반문[反詰]’을 나타낸다는 것이 부사의 징표일 수는 없다.

‘何(胡·奚)’류도 얼마든지 반어문에 쓰인다. 이러한 ‘焉’을 부사로 친다면 ‘何(胡·奚)’류도 의문대사 외에 부사에 결합하여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반문을 나타내는 데는 ‘豈·寧·庸’ 등도 쓰이지만 이것들은 순수한 의문을 나타내는 데는 쓰이지 않으므로 副詞에 귀속시키고 ‘어기’ 또는 ‘반문’의 부사로 분류하고 있다. ‘焉’과 가장 가까운 부류는 ‘惡(오)·安’ 등이며 언제나 ‘어디’를 뜻한다. 한국어에서 반문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이 ‘어디’라는 의문사를 상용한다. ‘어찌’ 또는 ‘어떻게’를 사용해도 반문을 나타내는 것은 같지만 ‘어디’·‘어찌(어떻게)’는 서로 다른 단어이다. 고대한어에서도 그렇다. 이들 각기 다른 단어를 한국어의 문맥에 맞추어 ‘어찌(또는 어떻게)’라는 공통되는 단어로 풀이하여 공통점을 묶어내듯이 현대한어의 ‘怎·哪’를 가지고 해석하여 개별 단어의 의미와 특성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품사를 정하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각기 다른 문맥을 통하여 파악한 쓰임의 차이를 품사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 북경대출판사 사전에는 또 疑問代詞와 代詞가 동일 층위에서 서로 다른 품사로 설정되어 있다.

‘의문대사’와 ‘대사’는 동일 층위에서 대립되는 품사가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명사·동사·형용사·부사 등과 구별되는 대등한 층위의 품사는 ‘代詞’라는 명칭으로 아우르고 있다. 그 안에서 서양 언어의 분류를 따라 인칭대사·지시대사·의문대사로 나누어왔다.<sup>7)</sup> 동일 층위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 ‘대사’ 항의 내용을 보면 ‘指代’ 즉 지시대사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상 출저 《新體系 漢文法大要—先秦·兩漢시기》(보고사, 2012.9), 125-127 쪽 참조.

7) 인칭대사·지시대사·의문대사로 나누는 것은 고대한어 대사 체계의 분류에 적합하지 않다. 인칭대사와 지시대사로 나누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영문법의 분류를 그대로 적용한 때문에 같은 대사를 양쪽에 귀속시켜 마치 두 가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양 기술하고 말았다. 출저 앞의 책 代詞편에서 이러한 분류의 오류를 시정하였다.

러므로 의문대사와 이 지시대사를 代詞 아래에 두고 다시 나누었어야 했다. 이것이 의미 내용의 해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단순히 체제상의 문제로만 여기기로 한다.

㉔ 다음으로 중요한 착오는 ‘兼詞’라는 품사를 부여한 데 있다. 개사 ‘於’와 대사 ‘之’(또는 ‘是’)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단어라는 것이다. ‘詞(단어)’는 실제 대화의 단위인 한 토막의 말, 즉 문장을 구성하는 독립성의 최소 언어 단위이다. 1음절로 된 단어가 두 단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는 연음에 의한 합음의 경우 밖에 없다. ‘諸’가 ‘之+於(于)’ 또는 ‘之+乎’의 합음이고, ‘耳’가 ‘而+已’의 합음이며, ‘曷’과 ‘盍’이 ‘何+不’의 합음에 의한 이른바 ‘兼詞’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焉’은 결코 ‘於(于)+之’의 합음일 수가 없고 따라서 검사일 수도 없다.

‘焉’의 뜻을 ‘於(于)+之’로 풀고 그것을 검사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단어들도 검사에 속해야 하겠는가? ‘於(于)+之’를 대신해서 ‘焉’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sup>8)</sup> 음운론상 어떠한 이유로도 ‘焉’이 ‘於(于)+之’를 대신하는 검사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문법적 의미 관계에 의해서라도 ‘焉’이라는 단어가 ‘개사’로서의 ‘於(于)’와 대사 ‘之’가 결합되어 나타내는 의미가 同義 관계를 지니는 것인가? 종래 고대한어 문법을 연구하는 이들이 언제부턴가 별 의심 없이 이러한 견해를 믿어온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之’가 목적어로 쓰일 때 술어와의 의미 관계상 ‘~에게’나 ‘~을(를)’을 뜻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대한어 목적어의 의미 범주에 드는 그 밖의 여러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데에 쓰일 수 있다. 고대한어에서 술어와 목적어의 결합이 나타내는 의미 범주는 매우 넓다.<sup>9)</sup> 그런데 이

8) 楊伯峻의 《文言文法》(1982[1987], 中華書局香港分局)은 이러한 오류를 고대한어 문법에 확산시킨 대표적인 책이다. 이 책에서는 ‘然·若·云’ 등까지 검사로 여기고 있는데(19-20쪽 참조) 오류이다. 이것들을 兼詞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이유를 줄지 앞의 책 61-62쪽의 각주에서 다루었다.

를 간과한 채 ‘於(于)’를 영어의 거의 모든 전치사에 대응되는 단어로 여기고, 여기에 단 두 가지 뿐인 영어의 목적어의 범주를 고대한어에 그대로 적용하여 이들 두 가지 목적어와 대응되지 않는 여타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대사 ‘之’가 쓰일 때는 ‘於(于)[개사]+之’로 써야 하는 것처럼 여겨 왔다. 고대한어의 ‘술어+목적어’라는 통사구조의 본질적인 특성을 외면함과 동시에 ‘於(于)’를 개사로 착각한 것이 이러한 문법 내지 詞義 설명의 출발점이다. 하나의 단어가 ‘~에(서)’·‘~부터’·‘~까지’·‘~에 의해서’·‘~보다’·‘~의 사이에’·‘~로’·‘~를 통하여’ 등 상이한 갖가지 기능적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 언어는 존재할 수 없다. 실제 언어 사용 중에 변별력을 갖지 못하여 단어로써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데 ‘於(于)’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고대한어 통사 구조의 특징이다. ‘焉’ 또한 ‘之’처럼 대사일 뿐으로서 그 자체로 그것이 갖는 뜻만을 지닌다. 고대한어의 ‘술어+목적어’가 나타내는 각종 의미 내용과 평행하게 대사인 ‘之’·‘焉’도 그대로 쓰인다. ‘於(于)’는 강조 기능을 갖는 ‘어기조사’이다.<sup>10)</sup> 그리고 ‘焉’은 본시 ‘之’보다 지시의 의미가 더 강한 대사일 따름이다.<sup>11)</sup> 그래서 대사일 때의 ‘焉’의 사용빈도가 대사일 때의 ‘之’보다 훨씬 낮다.

겸사는 아닐지라도 ‘之’와의 관계를 ‘於(于)’의 이러한 어기조사 기능을 참작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之’에 강조의 어기 ‘於(于)’가 더해진 것이 대사 ‘焉’이라고는 할 수 있다.

- 
- 9) 안기섭·정성임, <古代漢語 ‘술어+목적어’의 의미 유형 기술에 관한 성찰>, 《中國人文科學》 37, 2007.12 참조.
- 10) ‘於(于)’의 기능에 대해서는 줄고 <고대한어 ‘於(于)’의 介詞性에 대한 의문 - 先秦·兩漢 시기를 중심으로->(《中國人文科學》 50, 2012.4)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 11) ‘焉’의 代詞性和 助詞性 및 그 관계에 대해서는 줄지 앞의 책 222쪽, 289-291쪽, 304쪽에서 간명하게 요약해 두었다. 기존 학계에 통행되고 있는 ‘焉=개사 於(于)+대사 之’라는 주장을 제거하여 이를 바로잡았다.



대사 ‘焉’이 기본적으로 ‘之’와 같은 의미를 지니며 ‘之’보다 강한 의미를 지닌다고 여김에는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근거로 삼고 있다.

子女玉帛 則君有之, 羽毛齒革 則君地生焉.(《左傳·僖公二十三年》) (자녀[백성]와 옥과 비단은 임금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계시며, 깃과 털과 상아와 가죽은 임금님의 땅에서 그것을 생산합니다.)

淵深而魚生之, 山深而獸往之, 人富而仁義附焉.(《史記·貨殖列傳》) (못이 깊으면 물고기가 거기에 살고, 산이 깊으면 짐승이 그곳으로 가며, 사람이 부자가 되면 仁義가 그에게[거기에] 붙는다.)

‘之’로 받은 내용과 ‘焉’으로 받은 내용이 함께 쓰였는데 문맥상 ‘焉’의 指代性이 ‘之’보다 강함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지시하는 내용을 문장이나 문맥에서 찾을 수 없을 때 이러한 지시 기능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虛化에 의해 ‘조사’ 기능을 갖게 된 것이라 여기고 그 가운데서도 ‘강조’로 여긴다. 일반적으로 ‘焉’ 바로 앞의 일정 부분이 화자의 어의의 초점임을 강조한다고 설명된다. 그래서 다음 예들 중의 ‘焉’은 대체로 ‘助詞’로 분류된다. 특히 판단을 강조하는 어기조사 ‘也’와 대비되어 쓰일 때 이러한 기능이 두드러진다.

國人望君如望慈父母焉.(《左傳·哀公十六年》) (백성들이 임금을 우러러 보는 것이 자애로운 부모님을 우러러 보는 것과 같습니다.)

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論語·泰伯》) (나라에 도가 있는데 가난하고 또[게다가] 천하기까지 해도 수치스러우며, 나라에 도가 없는데 부유하고 또 귀하기까지 해도 수치스럽다.)

萬取千焉 千取百焉 不爲不多矣.(《孟子·梁惠王上》) (만에서 천을 취하고 천에서 백을 취함이 많지 않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君子病無能焉 不病人之不知也.(《論語·衛靈公》) (군자는 잘하는 것이 없는 것[잘함이 없음 → 능력이 없음]을 괴로워하지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는다.)

대사의 허화에 의해 조사 기능을 갖는다고 여기는 ‘之’에 관통되는 하나의 기능도 역시 ‘강조’이다.<sup>12)</sup> 본시 ‘焉’이 ‘之’보다 강한 지시성의 대사였으므로 허화된 뒤에도 둘 간의 이러한 강도 차이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뒷말을 강조하는 기능을 갖는 ‘조사’ ‘於(于)’가 대사 ‘之’의 앞에 쓰인다면, ‘之’가 강조되는 것이므로 대사 ‘焉’과 ‘之’ 간에 ‘於(于)[조사]+之[대사]=焉’이라는 의미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 논어나 맹자에 ‘於(于)+之’가 쓰인 예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於+是’의 경우만 《論語》에는 3번 나타나는데 두 곳은 술어가 되는 ‘是’의 앞이고 한 곳은 목적어가 되는 ‘是’의 앞이다. 어느 경우이건 모두 뒤에 오는 말을 강조하는 어기조사로 쓰인 경우이다. 《孟子》에는 9번 나오는데 8곳은 목적어가 되는 ‘是’ 앞이고 한 곳은 부사어가 되는 ‘是’의 앞이다. 역시 강조의 어기조사이다.<sup>13)</sup> ‘焉’이 ‘於+之’의 兼詞로 쓰인다면 ‘於+之’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焉’을 ‘於+之’로 풀이한 것이 허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서구 언어의 품사 분류를 고대한어에 무리하게 적용한 나머지 전치사

12) 조사 ‘之’에 다양한 기능을 부여한 종래의 통설은 음성상징인 언어의 본질과 실제 언어 사용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 그리하여 하나로 관통하는 조사 ‘之’의 기능이 ‘강조’의 어기조사임을 탐색하였다. 이는 줄고 <古代漢語 助詞 ‘之’의 機能에 관한 新論>(《中國人文科學》 40, 2008.2)에서 논증하였다.

13) ○ 《論語》의 예 :

君子無終食之間違仁, 造次必於是, 顛沛必於是.(《論語·里仁》)

吾黨之直者異於是: 父爲子隱, 子爲父隱. 直在其中矣.(《論語·子路》)

○ 《孟子》의 예:

王曰: 否! 吾何快於是? 將以求吾所大欲也.(《孟子·梁惠王上》)

吾慚, 不能進於是矣.(《孟子·梁惠王上》)

於是始興發補不足.(《孟子·梁惠王下》)

爾何曾比予於是?(《孟子·公孫丑上》)

何以異於是?(《孟子·公孫丑下》)

逢蒙學射於羿, 盡羿之道, 思天下惟羿爲愈己, 於是殺羿.(《孟子·離婁下》)

章子有一於是乎?(《孟子·離婁下》)

奚有於是?(《孟子·告子下》)

不素餐兮, 孰大於是?(《孟子·盡心下》)

[개사]를 설정하고 ‘之’나 ‘焉’이 쓰인 문장의 술어와의 의미 관계 차이를 전치사 ‘於(于)’의 기능이라고 여기고 이것이 수없이 많은 기능을 다 갖는 것으로 착각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여긴다.<sup>14)</sup> ‘於+是’도 겨우 몇 군데 나타날 따름이다. 그나마 ‘於’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是’ 자체만으로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술어와 부사어로 쓰인 경우가 한두 곳 뿐이다. ‘於’는 어기조사이다.

‘조사’ ‘焉’이 ‘대사’가 虛化됨으로써 생겨난 기능인 까닭에 대사로 보아도 문맥이 통하고 순수한 어기조사로만 보아도 문맥이 통하는 예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지시대사 ‘是’가 동사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흡사하다. 다음이 그 예들이다.

三人行，必有我師焉。(《論語·述而》)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그 가운데} 나의 스승이 있다.)

聖人非所與熙也，寡人反取病焉。(《晏子春秋·內篇雜下》) (성인은 더불어 희롱할 바가 아니다. 과인이 반대로 {그에게} 괴롭힘을 받았다[당했다].)

敏於事而慎於言 就有道而正焉。(《論語·學而》) (일에 있어는 민첩하고 말에 있어서는 신중하여 도가 있는 데 나아가 {그것(바로잡아야 할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상무인서관에서 발행한 사전에는 ‘連詞’가 추가되어 있고 의문대사의 일부를 ‘副詞’로 떼어낸 반면, ‘焉’의 ‘兼詞’ 기능에 대한 서술이 없다.

14) ‘於(于)’가 전치사[개사]가 아니라 조사인 이유를 줄고 <고대한어 ‘於(于)’의 介詞性에 대한 의문 -先秦·兩漢 시기를 중심으로->(《中國人文科學》 제50집, 2012.4)에서 상세히 논하였다. 이는 술어와 목적어의 결합만으로 다양한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는 고대한어의 기본 통사구조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으며, 고대한어 ‘술어+목적어’의 결합이 나타내는 각종 의미 관계는 안기섭·정성임의 <古代漢語 ‘술어+목적어’의 의미 유형 기술에 관한 성찰>(《中國人文科學》 37, 2007.12)에서 다루었다.

## 2) 각 품사 아래의 의미 항목 문제

## ㉔ 疑問代詞의 항

이 항에서 ‘焉’을 사람, 사물, 장소(처소), 반문[反詰]을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고 그 의미를 현대한어의 ‘誰’, ‘甚麼’, ‘哪裏·何處’, ‘怎·哪裏’에 각각 대응시켰다. 이에 더하여 이것의 虛化에 의해 ‘정도’를 나타낸다고 여겼다.

‘焉’이 의문대사로 쓰일 때, 고대한어에서 ‘誰’·‘孰’·‘何(胡·奚 등 포함)’류’ 등과 변별되어 뚜렷하게 대립되는 독립된 단어이다. ‘誰’가 사람을 나타내는 ‘누구’를, ‘孰’이 사람 사물을 가리지 않고 ‘어느 것(경우)’를, ‘何’가 ‘무엇’을 나타내는 데 대하여 ‘焉’은 분명하게 ‘어디’를 뜻하는 단어이다. 문맥에 따라 다른 단어나 구로 바꾸어 이해해도 되는 경우는 다른 실사류 어휘와 마찬가지로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焉’이 지니는 각기 다른 의미 항목이 아니다. 문장 전체의 의미 내지 문맥을 통하여 구체화하여 생각할 수 있는 각각의 쓰임(의미 내용)의 차이를 단어의 의미 항목이라고 여긴다면 이러한 언어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것이 ‘사람, 사물, 장소(처소), 반문’이라는 서로 다른 類의 개념을 갖는 단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대한 오류이다. ‘누구, 무엇, 어디, 어떻게(어찌)’의 의미를 따로따로 나타낸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하다면 ‘誰’·‘孰’·‘何’ 등의 존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역으로 ‘孰’·‘何’ 등에 대해서도 문맥에 따라 가리키는 내용이 ‘誰’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焉’이 갖는 뜻을 비슷하게 두루 지닌다고 말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언어는 있을 수 없다. 異種 단어 간의 同義가 이렇게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현대한어의 ‘哪’나 ‘哪裏’·‘哪兒’에 대해서도 이 같이 여기고 詞義를 정한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哪’는 ‘어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문형과 문맥에 쓰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일반 의문문에 쓰여서는 의문의 소재가 되고, 여럿 중에 어느 것마다를 모두 가리켜 의문의 뜻을 나타내지 않기도 하며, 반어문에서는 의문의 所在도 아니고 전부를 가리키

지도 않는 쓰임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哪裏’·‘哪兒’도 마찬가지이다. ‘어디’라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대답을 요하는 ‘어디’(장소가 아닌 추상화된 내용 포함)를 나타내기도 하고, 의문을 나타내지 않고 ‘어디건 모두’를 나타내기도 하며, 반어문에서는 의문의 소재도 이곳저곳 모두도 아닌 문맥상 추상화된 ‘어디’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어의 ‘어디’도 흡사하다. “어디 가느냐?”의 어디는 장소를 묻는 데 쓰이고, “어디인들 다르겠는가?”라고 하면 여러 곳 모두를 가리켜 대답을 요치 않으며,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라고 하면 그런 법이 없음을 강조하는 반어문이 되는데, 이 ‘어디’가 세 개의 각기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의사소통이 가능하겠는가? 이 세 가지 의미를 나누어 두되 속에 저장해 두고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하겠는가? 반어문에 쓰이는 ‘焉’을 虛化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따위는 참으로 非문법적이다.

상무인서관 발행본에서는 ‘반문’에 쓰이는 ‘焉’을 ‘부사’로 분류하였음은 앞에서 말하였다.

또 두 사전 모두 ‘焉’의 소위 ‘處所義’가 허화되어 ‘정도’를 묻는다는 설명을 부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문맥이므로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다. ‘曰: “殷甚亂矣.” 武王曰: “其亂焉至?” 對曰: “讒慝勝良.”(《呂氏春秋·貴因》)’이 그 예이다. “其亂焉至?”를 “그 어지러움이 어디까지(어디에) 이르렀는가?”로서 역시 ‘어디’를 뜻한다고 하면 그만인데 문맥을 살펴서 ‘어느 정도’라고 통석함으로써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이는 ‘焉’이라는 단어의 각기 다른 의미항이 될 수도 없고 따라서 문법적인 기술이 될 수도 없다. 이런 식이라면 더 많은 복잡한 군더더기 설명을 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어디’라는 개념 하나로 관통되는 ‘焉’의 의문대사 기능을 문맥에 따라 ‘사람, 사물, 장소(처소), 반문[反詰]’ 등의 각기 다른 詞義를 갖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전혀 문법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언중의 실제 언어 사용에서 변별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대비되는 다른 단어들과의 경계를 허물어 마치 同義詞인양 기술한 것도 중대한 모순이다.

이러한 그릇된 관념의 연장이 낳은 대표적인 오류가 바로 다음 예의 ‘焉’을 ‘부사’로 독립시켜 ‘의문대사’와 구별하는 따위이다. 상무인서관 허사사전이 그렇다.

吳人焉敢攻吾邑?(《呂氏春秋·察微》) (오인들이 어디[→어떻게, 어찌] 감히 우리 읍을 치겠는가[공격하겠는가]?)

姜氏欲之 焉辟害?(《左傳·隱公元年》) (강씨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디[→어찌, 어떻게] 해를 피하겠는가?)

仁義之不爲桎梏鑿柄也, 焉知曾史之不爲桀跖嚆矢也!(《莊子·在宥》) (仁和 義가 차꼬와 수갑[의 관계], 구멍과 자루[의 관계]가 되지 못하는데, 어디[→어찌, 어떻게] 曾參[仁人]과 史鱣[義人]가 桀王[폭군]이나 盜跖[도적]의 시작[처음]이 되지 못함을 알겠는가?)

예의 반문의 문장에 쓰인 ‘焉’도 ‘어디’라는 개념 하나로 관통되는 ‘의문대사’일 따름이다.

‘그’ 내지 ‘거기’로 의미를 대표하여 표현할 수 있는 ‘지시대사’의 기능과 ‘어디’로 의미를 대표하여 표현할 수 있는 ‘의문대사’ 기능 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특히 하나로 통합되는 단어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본고에서도 이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한국어 중의 대응 어휘로 풀이한 것에 의해 ‘焉’의 의미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그’ 내지 ‘거기’라는 어휘를 중심으로 하여 풀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거하여 ‘의문대사’로서의 ‘어디’가 장소(처소)를 뜻하는 것에 상응하여 ‘지시대사’로서의 ‘그’도 처소성을 가져 ‘焉’에 ‘어디’와 ‘거기’의 의미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추측은 해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처소화하여 표현하는 지시대사로서의 성질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사전 모두 문장 성분을 정하는 데서도 문제가 보인다. 다음 예를 ‘焉’이 ‘부사어’[狀語]로 쓰였다고 한다.

且焉置土石?(《列子·湯問》)(또 어디에 흙과 돌을 두겠습니까[버리겠습니까?])

‘焉置’만 있으면 문장 성분을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沛公安在?”(《史記·項羽本紀》)(패공[유방]은 어디 계시는가?)의 ‘安在’는 ‘焉’과 同義인 ‘安’(어디)이 의문대사인 관계로 ‘술+목’이 ‘목+술’로 도치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焉置’도 마찬가지로 술목구조의 도치이다. 이 문장에는 ‘土石’이라는 목적어가 하나 더 있을 따름이다. 고대한어에는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형태 표지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어순일 경우에도 문장 성분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왕왕 분별상의 혼란이 따른다. 북경대학출판사 허사사전의 의문대사 항에서 “天下之父歸之, 其子焉往?”(《孟子·離婁上》)(천하의 아버지들이 그[周 문왕]에게 귀의하는데 그의 자식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의 ‘焉’을 목적어라 하고는 바로 아래에서 ‘焉置土石’ 중의 ‘焉’은 부사어라고 한 모순을 보인다. 다 같이 목적어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전체 체계상 훨씬 합리적이다. 문장 성분 규정에 일관성이 없는 데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성을 갖는다는 그릇된 인식의 영향도 크다.

‘安在’에 대해서는 ‘安’을 부사어라고 여기지 않고 술목구조의 도치 형식이라고 여기면서도 ‘焉置土石’에 대해서는 얼른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 개념도 전적으로 서구 언어의 문법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런데 현대한어건 고대한어건 목적어의 범주가 서구 언어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 ‘술어+목적어’ 관계를 동일 형식의 어순을 기본 조건으로 하여 설정하는 한, 한어의 목적어 범주는 매우 넓다. 애초에 서구 언어의 목적어 개념을 도입할 때 단일목적어가 타동사와 직접목적어의 결합일 뿐인 것에 맞추어 이에 대응되는 ‘술+목’ 결합만을 취하여 한어의 목적어라고 규정했던 사실을 조기 문법 저작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차차로 중국어의 어순에 의거할 때 소위 자동사도 목적어를 취한다고 말할 수 밖에 없음을 발견하고, 영어에서 보어라 이르는 불완전자동사의 후속 성분에 대응되는 성분과 완전자동사 후속 성분까지도 목적어의 범주에 넣게

되었다. 더구나 형용사도 영어와는 달리 전치사의 개입 없이 목적어를 취하므로 한어의 목적어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어의 목적어의 범주에 대한 이해는 일치되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馬慶株는 한어의 목적어의 범주를 가장 전진적으로 이해한 대표적인 학자이다.<sup>15)</sup>

한편 한어에서의 단일목적어의 범주가 서구 언어에서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중목적어’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서양언어에서의 이중목적어는 오직 타동사가 간접목적어(목적어1)와 직접목적어(목적어2)를 동시에 취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며 목적어가 둘인 경우는 오직 술어와 이러한 관계를 갖는 경우뿐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개념을 도입하여 한어에서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이에 대응되는 예만을 고집하여 술어와 여타의 의미 관계를 갖는 목적어는 간과하였다. 단일 목적어의 범주에 대해서는 이미 서양 언어의 그것보다 넓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두 개의 목적어에 대해서는 아직도 서양의 이중목적어 개념에 갇혀 있는 것 같다. 현대한어에서 종래 ‘수량보어’라고 규정했던 것들이 통사 구조상 목적어의 한 유형임을 간과하지 못하고 의미에 치중하여 줄곧 보어의 하나로 간주해 왔으나 이를 목적어의 한 가지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고대한어에 대해서는 아직도 동일 형식의 통사 형식에 대한 관찰이 철저하지 못한 것 같다. 단일목적어의 경우 영어에서 ‘직접’ 또는 ‘간접’이라는 말로 지칭하는 의미 관계 외에 매우 많은 종류의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sup>16)</sup> 인정하면서도 이중목적어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서구 문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일 목적어의 경우와 평행하게 ‘직접’ 또는 ‘간접’이라 이를 수 있는 이외의 관계들이 존재하리라는 것은

15) 《漢語動詞和動詞性結構》，北京語言學院出版社，1992.

16) 안기섭·정성임, <古代漢語 ‘술어+목적어’의 의미 유형 기술에 관한 성찰>, 《中國人文科學》 37, 2007.12 참조.



자명한 이치인데도 말이다. 예컨대 ‘爲小門(於)大門之側’이라고 할 때 ‘小門’이 ‘爲’의 직접목적어라면 ‘大門之側’은 장소를 나타내는 목적어이다. ‘置海土石’(또는 ‘置土石(於)海’)라는 답을 가정해 보자. 장소를 나타내는 목적어를 묻는 말은 ‘置焉土石?’이 될 것인데, 고대한어에서 의문의 소재를 나타내는 의문사는 ‘焉置土石?’처럼 술어 앞으로 전치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즉, ‘安在?’(어디에 있느냐?)에서 ‘安’은 직접목적어도 간접목적어도 아닌 장소를 나타내는 목적어이다. ‘술어+목적어’를 기본 어순으로 설정할 때 ‘安在’가 도치 형식이라면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한 경우에도 의문사 목적어가 도치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焉置土石’의 경우 서양 언어의 목적어 개념에 대응하여 말한다면 ‘土石’이라는 직접목적어는 그대로 있고 의문사로 표현되는 장소 목적어만 도치되었다고 말하게 된다.

영어에는 이러한 단순한 형식의 목적어 도치가 없다. 그러므로 단일목적어건 이중목적어건 서양 언어의 그것과 연계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고대한어에서는 세 개의 목적어가 출현하는 예도 보인다. 예컨대 “西喪地於秦七百里.”(《孟子·梁惠王上》)(서쪽으로는 땅을 진나라에 칠백 리를 잃었습니다.)는 ‘喪+地[목적어1]+(於)秦[목적어2]+七百里[목적어3]’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한어의 다섯 가지 기본 통사 구조가 형태 표지에 의한 구조 형식의 차이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니라, 어순과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설정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같은 어순일지라도 의미상으로는 서로 다른 구조 형식에 속하기도 하며, ‘安在’나 ‘焉置’의 경우처럼 ‘술목’과 ‘수식’ 가운데 어느 것으로 보아도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게 된다.

《說文解字》의 ‘焉’字解와 段玉裁 및 朱駿聲의 注解는 다음과 같다.

說文：焉，焉鳥，黃色，出於江淮。

段注：今未審何鳥也。自借爲詞助而本義廢矣。(《說文解字注》)

朱注：焉，假借爲曷，如安同。……又發聲之詞。……又語調之詞。(《說文通訓定聲》)

《說文解字》는 새의 이름으로 쓰인 사실만을 언급하였다. 段注는 본의가 새 이름이었으나 ‘詞助’로 차용되면서 본의가 없어졌다고 하였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조사’의 기능만을 염두에 둔 말인 듯하다. 朱注는 에서 ‘焉’은 ‘曷’로 가차되었으며 ‘安’과 같다고 한 것은 ‘어디’를 뜻하는 의문대사의 의미를 가리킨 것이고, ‘發聲’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한 것은 ‘焉’의 어느 의미항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명확치 않으며, ‘語調’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한 것은 ‘조사’로서의 기능을 가리킨 것이다. 오늘날의 관찰인 지시대사의 허화라는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어느 경우이건 새의 이름으로 쓰인 예는 들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밝혀진 바가 없다.

#### ㉔ (指示)代詞의 항

‘疑問代詞’와 분리하여 품사 항목을 달리하고 ‘代詞’라고만 지칭한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의문대사’ 항에서 ‘사람·사물·처소·반문’ 등으로 나눈 것과는 달리 ‘사람이나 사물’을 ‘指代’한다고만 하였다. ‘의문대사’를 나누듯이 하면 사람·사물을 비롯하여 처소도 두어 나누어야 할 것이다. 분류상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예문도 충분하지 않고 先秦·兩漢의 것은 하나뿐이다.

‘焉’의 다음 용례는 모두 ‘지시대사’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다.

淵深而魚生之，山深而獸往之，人富而仁義附焉。(《史記·貨殖列傳》) (물이 깊으면 물고기가 거기[그곳]에서 생장하고 산이 깊으면 짐승이 거기[그곳]으로 가고 사람이 부유해지면 인과 의가 그[그 사람]에게[한테] 붙는다.)  
-사람

吾聞西伯賢又善養老，盍往焉?(《史記·齊太公世家》) (나는 서백이 어질고 또 노인 봉양을 잘한다고 들었는데, 뭐로[→어찌] 그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까?) -사람

彌與紘 吾皆愛之 欲擇才焉而立之.(《左傳·襄公二十三年》) (미는 흠과 더불어 내가 모두 {그들을} 사랑하지만, 거기에서[그들 가운데서] 재주 있는 놈을 택해서 그를 [왕 위에] 서게 하고 싶소.) -사람

飲食男女 人之大欲之存焉.(《禮記·檀弓》) (음식과 남녀관계[성생활]는 사람의 커다란 욕망이 거기에 있다[큰 욕망의 소재이다].) -사물과 추상적인 내용을 아우름

號物之數謂之萬, 人處一焉.(《莊子·秋水》) (사물의 수를 불러 그것을 만이라 이르는데, 사람은 그 가운데[거기에서] 하나를 차지한다.) -추상적인 내용

非曰能之 願學焉.(《論語·先進》)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길 원합니다.) -추상적인 내용

君子道者三, 我無能焉.(《論語·憲問》) (군자의 도는 셋인데, 나는 그 가운데서[거기에서] 잘하는 것이 없다.) -추상적인 내용

人誰無過 過而能改, 善莫大焉.(《左傳·宣公二年》) (사람이 누구에겐들 잘못이 없겠습니까?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을} 고칠 수 있다면, 선은 그(것)보다 큰[선하기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추상적인 내용

後世無傳焉.(《孟子·梁惠王上》) (후세에는 그(것)[환공과 문공에 관한 일]에 대해 전해진 것이 없습니다.) -일

昔者吾舅死於虎, 吾夫又死焉, 今吾子又死焉.(《禮記·檀弓》) (집때 저의 시아버지가 호랑이한테 죽임을 당했고, 저의 남편이 또 그것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저의 아들이 또 그것한테(에게, 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물(동물)

예가 보이는 바와 같이 ‘焉’이 ‘指代’ 작용을 할 때는 사람이나 사물뿐만 아니라 일·추상적인 내용에 걸쳐 두루 지시하는 말이다. 모든 지시 대상을 ‘그’(내지 ‘거기’) 하나로 지칭한다. 여러 개의 뜻을 나누어 가지지 않는다. 요컨대 전체 문장이나 문맥이 알려주는 내용이 ‘焉’의 각기 다른 의미 항목이 될 수 없을뿐더러 문법 사실이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와 상대되는 지시대사 ‘之’보다 강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이 같은 문장 내에서 ‘之’와 대비되어 쓰여서 드러나 있거나 문맥에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실은 지시대사로서의 ‘焉’이 앞 술어와 직접 결합함으로써 여러 가지 의미 관계를 두루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이는 의미상의 일반 명사가 술어 뒤에 쓰여 각종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이것이 고대한어의 통사적 특징이다. 무슨 전치사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於(于)’라는 전치사와 대사 ‘之’의 결합이라는 주장은 당치도 않다. 더구나 ‘兼詞’ 운운하는 것은 ‘焉’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기능을 극단적으로 곡해한 것이다.

‘거기[그곳]에서’·‘거기[그곳]로’·‘그[그 사람]에게[한테]’·‘거기에서[그들 가운데서]’·‘거기에’·‘그 가운데[거기에서]’·‘그것을’·‘그(것)보다’·‘그(것)에 대해’·‘그것한테(에게, 에 의해서)’ 등등의 관계는 앞의 술어의 의미와 ‘焉’이 지시하는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결코 ‘於(于)’라는 전치사가 개재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焉’을 썼는데 어떤 때는 전치사가 필요 없이 ‘그것을’이 되고 나머지는 전치사가 개재되어 여러 가지 의미 관계를 나타낼 수 있겠는가? ‘於(于)+之’라 여긴들 ‘於(于)’라는 똑같은 음성이 어떻게 다수의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낸단 말인가? ‘於(于)’를 전치사로 본 것도 명확한 허구이다.<sup>17)</sup> 영어의 전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나머지 한 가지 단어가 영어의 거의 모든 전치사 역할을 하는 해괴한 설명을 도출해 내고서도 성찰이 없었던 것이다.

상무인서관 발행본에는 ‘之’와 대비되는 ‘焉’의 이 지시대사 기능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

#### ㉔ 助詞의 향

놓이는 위치에 따라 文末과 文中으로 나누고 있는데 사실 文頭를 제외하고 문중과 문말의 구별은 문법 단위를 단어와 구 및 문장(절 포함)으로 나누는 데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한 단어라는 점에 착안하면 굳이 나누어 볼 필요가 없다. 또 구나 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사람

17) ‘於(于)’의 기능에 대한 상세한 고증은 줄고 앞의 논문이나 줄저 앞의 책을 참조할 수 있다.

마다 문중이나 문말이나 하는 것이 달라진다.

문말의 경우 문제되는 것은 문장의 용도가 서술문이면 현대한어의 ‘了’이고, 의문문이면 ‘呢’이며, 추측문이면 ‘吧’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焉’이 이러한 각기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겠는가? 이처럼 혼란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여 화자와 청자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는가? 문말에 쓰이니 어조의 차이에 의해 그럴 수 있다고 강변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 하나로 관통되는 어기조사로 인식되어 있어야 실제 언어에서 실용할 수 있다고 여긴다. ‘焉’의 일관된 어기조사 기능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화자가 語義의 초점이 ‘焉’ 앞의 일정 부분에 있음을 알리는 일종의 ‘강조’인 것이다.

문중에 쓰인 것은 ‘提頓’, 즉 ‘제시와 정돈(내지 휴지)’이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가 문법 단위를 설정함으로써 만들어 낸 개념으로서 사실 문말에 쓰인 ‘焉’의 기능을 축소하여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역시 ‘강조’의 기능 하나로 관통되며 어의의 초점의 소재임을 나타낸다. ‘焉’ 앞에 놓인 말의 문법 단위의 크기를 ‘焉’의 기능 차이를 말해주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문중에 쓰인 조사의 기능 가운데 끝으로 언급할 점은 목적어 전치의 표지로 여긴 사실이다. 고대한어에는 ‘格’표지가 없다. 한어는 격에 있어서 무표 언어이다. 도치 표지로 여긴다 함은 목적격만을 인정한 것인데, 모든 목적어를 다 이와 같이 술어 앞에 전치시키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강조되는 성분이 일반 어순을 이탈하여 도치되는 원리에 의거할 때 이 역시 일관되게 ‘강조’의 기능을 하는 성분인 것이다. 그리고 한어에서 ‘주어+술어+목적어’의 어순을 이처럼 하나로만 설정할 때, 주어의 개념은 문두에 놓이는 설명의 대상, 즉 넓은 의미에서 화제가 된다. 이 점이 서구 언어의 주어의 범주와 크게 다르다. 그래서 소위 ‘주술술어문’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왕왕 부사어와의 경계가 모호하다. 형태표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문맥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목적어의 범주도 주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주어를 화제 내지 주제의 개념으로 여김에 따라 목적어의 범주 또한 서구 언어의 것과 크게 다르다. ‘술어+목

적어'라는 하나의 통사 형식으로 여격과 대격이라 부르는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에 모두 이른바 의미상의 '施事'와 '受事'가 존재한다. 그래서 피동문의 행동주도 목적어의 형태로 나타나고, 도구·장소·이유·목적·비교의 대상·수량·관계성분 등등까지 모두 목적어 자리에 나타난다.

같은 이치로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가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 관계를 술어가 되는 의미상의 동사가 아무런 표지 없이 자동·타동(使動·意動 포함)·수동[피동] 등을 다 나타냄으로써 보조한다.<sup>18)</sup> 고대한어는 기본 어순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개별 단어의 의미와 문맥이 문장의 의미를 결정하는 언어이다.<sup>19)</sup> 이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관찰해 보면 도치된 목적어로 여겨온 술어 앞의 성분을 주어로 여겨도 무방함을 알 수가 있다. 이 때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는 수동[피동]이 된다. 그래서 단어와 단어 간의 통사 관계가 실은 의미에 의해서 파악되고 있다. 수식·술목·보충·주술 등의 관계를 구별해 주는 표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순은 같아도 왕왕 관계가 달라진다.

사전에서 도치의 표지로 든 예를 다시 보자.

我周之東遷, 晉鄭焉依.(《左傳·隱公6年》)

(우리 주나라가 동천하면 진과 정을 의지한다[비교: 진과 정이 의지가 된다].)

《鄭書》有之曰: “安定國家, 必大焉先.”(《左傳·襄公30年》)

(정서에 그것이 있는데, “국가를 안정시키려면 큰 것[大族]을 우선시해야[비교: 큰 것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역문 중에 [비교:]난의 번역은 '焉' 앞의 성분을 목적어로 보지 않고 주

18) 앞의 책, 143-152쪽 참조.

19) 안기섭·김은희의 <고대한어 '而'의 連詞性에 대한 의문 -先秦·兩漢 시기를 중심으로->(《中國人文科學》 51, 2012.8) 및 앞의 책 제Ⅲ장 虛詞류의 쓰임 조사 '而'의 항 참조.

술 관계로 여겨 이해한 것이다. 즉, 주술구조로 여기고 술목구조의 도치로 여기지 않는 분석이다. 전체 문의에는 손상이 없다. 이것은 고대한어 수동문[피동문]의 기본 통사 형식이다.<sup>20)</sup> ‘焉’ 앞의 성분을 주어로 보느냐 목적어로 보느냐는 일종의 자의성의 문제이다. 어순 측면에서 고대한어의 전체 특징을 중시하면 전체 체계상으로는 주술구조가 더 합리적이다. 이처럼 고립어에서는 어순의 도치에 의한 변형으로 보지 않고 동일한 틀 안에서 보면 그 특징이 돋보인다.

‘焉’과 같이 대사 ‘之’·‘是’도 허화에 의해 조사화한 경우 모두 이러한 쓰임을 보인다. 그 가운데 ‘之’가 가장 많이 보일 따름이다. 조사 ‘之’·‘是’의 경우도 이처럼 주술 관계로 파악하면 이것들에 관통하는 ‘강조’의 기능이 완벽하게 설명된다.<sup>21)</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사 ‘焉’의 일관된 기능도 단어의 의미가 음성(음운)의 차이에 있다는 언어의 본질 속성에 잘 부합된다.

물론 굳이 주술구조로 파악하지 않고 술목구조의 도치로만 보아도 ‘강조’의 기능은 두드러진다.

다음은 문중 조사라 할 만한데 사전에 있지 않다. 문중 조사로 여긴 경우에 대해서는 문장 성분 관념을 도입하지 않아서인 것 같다.

於是焉河伯欣然自喜，以天下之美爲盡在己。(《莊子·秋水》) (이에 하백은 혼연히 스스로 좋아하면서 천하의 아름다움을 다 자기에 있다고 여겼다.)

종래 ‘於是’를 ‘개사+대사’의 구조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하나의 단어로써 접속사[연사]로 취급하였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여기에서 잠시 언급해 둔다. 문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 ‘焉’도 여러 가지 문

20) 줄고, <古代漢語 被動義 전달체계와 관련 詞의 詞性>, 《중국어문론집》 15, 2000.10 참조.

21) ‘之’의 기능을 논한 앞의 논문 및 앞의 책 “제Ⅲ장 虛詞류의 쓰임” 조사 ‘之’의 항 참조.

장 성분 뒤에 두루 놓일 수 있다. 위의 예는 ‘是’가 대사 그 자체로서 문장 성분상 부사어로 쓰였으며 조사 ‘於’가 이를 강조하고 있다.<sup>22)</sup> ‘焉’은 다시 뒤에서 이 ‘是’가 초점이 됨을 강조한 것이다.

助詞로서의 ‘焉’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강조’라고만 말하면 다른 ‘강조’성의 조사들과의 경계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之’, ‘而’, ‘於’, ‘者’ 등과 같이 문중에 쓰이고 ‘강조’성을 중심으로 주된 기능이 설명되는 어기조사가 다수 존재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것들 간의 차이는 주로 놓이는 위치와 전후 어휘들 간의 통사 관계에 의해 살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여도 종종 한계에 부딪치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국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焉’의 기능을 다소 구체화하여 말하면, “焉”은 주로 구나 절(또는 문말)의 뒤에 쓰여 이 부분이 화자의 말 가운데서도 초점이 되는 부분임을 강조하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종래의 관점을 조사인 ‘焉’ 전체에 적용한 것이다.

각 조사 앞 성분의 기능(문장 성분)에 의해서 주된 경계를 살필 수는 있으나, 문장 성분을 가지고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게 된다. ‘也’·‘者’는 한 단어 뒤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한 데 대하여 ‘焉’은 이러한 예가 극히 드물다. 또 강조의 기능이라 할지라도 ‘者’는 문중이나 구말(또는 문말)을 가리지 않고 쓰이면서 앞말을 추스르는 지시성까지 지니므로 ‘焉’과는 구별된다. ‘也’는 어디에 놓이건 판단의 대상임을 강조하는 조사이다. ‘之’는 관형어와 주어의 뒤에 가장 많이 나타나 이것이 강조하는 문장 성분이 두드러진다.

### 3. 품사 부여와 의미 파악상의 新思考

同音假借에 의한 동일 문자 사용을 제외하면 漢字는 대체로 하나의 의

22) 조사 ‘於(于)’의 용례와 일관된 기능에 대해서는 앞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미 영역을 나타낸다는 구속력을 갖는 문자이다. 한글과 같은 순수 표음문자와 크게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허화와 확장에 의한 의미의 변화가 그것이다. 이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어느 단어가 후대에 사용되지 않을 때 그러하다. 동일한 문자를 후대의 언어로 풀이하게 되면 단어의 조합이 나타내는 문장 전체의 의미와 문맥에 의존하기 마련인데 이에 따라 후대의 다른 어휘로 번역되면 이들 각각을 그것의 복수 의미라고 여기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이 문제이다.

본고에서도 통시적인 변천 과정에서 의미나 용법이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사전에는 이러한 각 역사 단계의 다양한 의미가 수록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지금의 사전에 보이는 다양한 풀이 항목들을 모두 품사의 분화나 의미 변화의 반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현재의 여섯 가지 문장 성분의 분석들에 비추어보면 비교적 잘 드러난다. 현재의 사전들에 나타나는 풀이의 성격은 문맥상의 인지적 성격이 강하다고 여긴다. 의미의 통시적 변화에 의한 의미향의 증대로 여길 수 있으려면 문장 성분이나 통사상의 결합에서 다른 것들과 변별되는 구조적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언어의 본질이 음성과 의미의 결합이라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전에 쓰이던 의미나 용법이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면 모르지만 기존의 의미향이 모두 존재하고 여기에 다시 새로운 의미들이 파생되어 의미향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찾지 못하였다. 하나의 단어가 지금 우리가 문맥을 통하여 풀이하고 싶은 만큼의 서로 다른 다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언중들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할 것이다. 단일 음성이 지니는, 특히 단음절 단어가 지니는 변별 능력은 형태의 변화나 굴절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한 단어가 처음 쓰일 당시에는 후대의 여러 어휘 또는 句로 번역할 만큼 의미가 분화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후대의 언어로 풀이한 고대한어의 의미 항목을 당시의 의미 항목의 수로 여기곤 한다. 그러나 아니다. 특히 의미상 관념상의 구분이라는 성격이 강하여 다

소 불완전한 경계인 품사의 구분과 연결하여 하나의 단어가 두 개의 품사를 갖는 것으로 여기는 일이 빈번하고 그 이유를 주로 ‘虛化’로 든다. 의미의 확장이라고 하는 경우는 더욱 애매하다. 품사상 대사와 조사를 상정하고 허화라는 잣대를 사용하여 한 단어를 대사와 조사와 허사 양쪽에 둘 때는 오직 조사로만 쓰이는 단어들과 성질상 경계가 모호해진다. 통사구조상의 차이가 없을 때, 대사로 지목한 단어가 동일한 음성 표지로써 가리키는 내용이 있는 경우는 ‘代詞’이고, 문맥상 가리키는 내용이 없어 보이면 ‘조사’로 여기는 이상의 변별 기준은 아직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중 어느 것으로 보아도 文意가 통하는 예가 적지 않다. 장구한 시간을 통해서 소위 ‘虛化’가 진행되었다면 과도기에는 필시 이러한 변별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대사와 동사를 겸하는 경우도 그렇다. 魏晉시기의 ‘是’字는 백화문이건 문언문이건 이러한 성격이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예이다. 어느 것으로 보아도 文意가 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나의 단어를 ‘대사와 조사’로 나누는 경우는 사실 ‘조사’라는 품사를 무시하는 관점을 사용할 수도 있다. 지시성을 지녀 ‘대사’로 여겨지는 단어가 문맥상 가리키는 내용이 없거나 추상화되는 경우는 한국어에도 있다.

현대한어에서 ‘這個’·‘那個’는 구어 중에 흔히 등장하는데 주어·목적어 등의 문장 성분이 되지 않고 모든 문장 성분 뒤에서 허두로 쓰이는 경우를 흔히 본다. 고대한어 대사·조사 구분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이 경우는 ‘조사’라고 해야 할 것이나 아직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강조할 경우,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우, 숨을 돌리는 경우, 다음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은 경우 등에 두루 나타난다. ‘哪裏’는 의문대사로 분류된다. 그런데 반어문에 쓰이면 ‘어디’ 뿐만 아니라 ‘어찌, 어떻게’로 해석되며 뜻이 통한다. 전체 문맥에 의해서 추상화된 의미를 파악하여 다른 어휘로 대체함으로써 ‘부사’로 여긴 것은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문맥이지 결코 ‘哪裏’의 의미 변화 내지 확장이 아니다. 요컨대 다른 어휘와의 의미의 조합을 통하여 형성된 문맥이다. 물론 현대한어에서 이 역시 의문대사로 여기고 어기‘부사’로 여기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대한어에

서 ‘어디’를 뜻하는 ‘安·惡(오)·焉’에 대해서는 현대한어의 ‘哪裏’처럼 반어문에 쓰인 경우를 어기‘부사’라고 여겨 품사를 하나 더 부여하는 경우를 왕왕 본다. 이러한 품사와 의미 부여의 태도는 참으로 납득하기 곤란하다. ‘哪裏哪裏’는 겸양의 표현으로서 ‘천만에요’를 뜻하는데, 사실 ‘어디요 어디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문맥이다. 문맥으로는 대답을 요하는 의문의 기능을 상실했으니 고대한어 ‘焉’ 등에 대한 代詞와 助詞 부여 방식을 취한다면 의문을 나타내는 대사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그냥 의문대사에 귀속시켜둔 채 ‘활용’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你要甚麼, 給你甚麼.’ 중의 ‘甚麼’는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주겠다’를 뜻하여 ‘甚麼’가 의문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지 않으니 역시 의문대사의 활용이라고 한다. ‘你有甚麼事?’(‘무슨 일이 있느냐?’) 중의 ‘甚麼’는 ‘무엇’을 뜻하여 의문을 나타내는 대사인데. ‘你有甚麼事嗎?’(무슨 일이 ‘있느냐?’) 중의 ‘甚麼’는 의문을 나타내지 않고 ‘무슨 일이건 어떤 일’을 나타내니 다른 설명을 추가하는 것도 ‘你要甚麼, 給你甚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경우이다. 문맥이 어떠한지 다 같이 ‘무슨(무엇)’이라고 한 가지로 말하고 있으니 두 가지 품사 부여도 두 가지 의미 부여도 문법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차이는 문맥이며 여전히 의문대사이다. 이것들의 품사와 어휘의미[詞義]는 하나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경대학출판사 허사사전에서 그나마 ‘어디’를 뜻하는 ‘焉’을 ‘의문대사’로 본 것은 옳고, 상무인서관의 허사사전이 ‘부사’로 본 것은 옳지 않다.

고대한어를 다룰 때와 현대한어를 다룰 때 일관성이 없는 이런 태도는 자주 볼 수 있다. ‘어디’를 뜻하는 단어에 대한 현대한어 문법 기술 태도가 언어 실체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면 이를 벗어난 나머지 설명들은 과다 기술 내지는 착오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焉’과 같이 대사와 조사의 둘로 나누고 있는 단어들은 사실 ‘代詞’ 또는 다른 이름 하나로 명시하고 ‘助詞’라는 품사명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 공존하는 한 단어의 상이한 문맥에서의 사용에 의한 기능 차이가 아니라 의미의 확장이나 허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대사와 조사를 나누기로 할지라도, 대사의 기능을 문맥에 따라 다시 나누고 조사의 기능도 여럿으로 나누어버린다면 실제 언어에서의 이들 단어의 의미 변별 기능과는 무관한 것이 될 것이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동일 음성 표지의 의미 구분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중(화자와 청자)의 두뇌 속에는 이들 여개 개의 'langue'로 저장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은 언어의 실상이 아니며 문법 기술로서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여긴다. 문법 특징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언어의 본질은 하나의 음성 형태에 하나의 의미가 결합된 것이라는 사실을 벗어나면 과다하거나 그릇된 관찰과 기술에 이르게 된다. 하나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문맥상, 의미론 상으로 또는 다른 언어로 이해할 때 다수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그 단어가 포괄하는 '하나'의 의미일 뿐이다. 오늘의 언어에서 그와 똑 같은 성격이나 내용을 지닌 단어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월이 흐를수록 의미 항목의 수가 늘어나고 해석의 착오도 늘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복잡한 문법 설명으로 이어짐으로써 당시 언어의 실상과는 먼 기술이 보태지는 것이다.

### Ⅲ. 나오는 말

古代漢語 虛詞詞典이나 일반 고대한어 사전의 풀이는 저마다 문법상의 차이를 지니고 있다. 활용상 어느 것을 취해야 옳은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품사 분류를 행한 경우가 많고 각각의 품사 아래서 다시 의미를 나누고 있어서 문법서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대한어 허사에 대한 복잡하고 난해한 기능 분류가 특히 그러하다. 한 단어의 품사 수와 의미항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것들이 의미 항목을 바르게 설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焉'의 풀이에도 이러한 난삽함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수정 試案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정리하여 결론 삼기로 한다.

1. 품사의 종류가 매우 많고 분류 체계가 맞지 않다. 허사사전에서 제시한 품사 전부를 가지고 정리한다면 ‘焉’은 代詞·助詞 둘로 압축함이 마땅하다. 조사는 어기조사이다. 대사는 그 안에서 지시대사와 의문대사로 나누면 된다. 指示代詞일 경우는 ‘그(내지 ‘거기’)'를 중심으로 번역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 향으로 파악되며, 疑問代詞일 경우는 ‘어디’를 뜻하는 하나의 의미향으로 파악된다. 文意를 이해함에는, 바꾸어 말해서 화자와 청자가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는 이 이상의 의미향이 필요치 않다.

語綴 또는 詞綴로 명명되고 그 가운데 後綴[詞尾](접미사)로 분류한 것은 문법 단위상 형태소이므로 단어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다만 ‘焉’類의 접미사가 先秦·兩漢 시기에 모두 造語 성분인 형태소였는지 단어로써 부가적인 의미를 나타냈는지에 대해서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심도 있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또 하나 있다. 代詞가 과연 虛詞인가 하는 점이다. 근래에 대사를 허사로 여기는 사람도 생겨났고 부사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虛·實에 관해 의견의 불일치가 있어 왔으나, 대사는 조사와는 달리 독립성이 강하여 그 자체만으로 각종의 문장 성분이 되기 때문에 실사로 간주함이 옳다고 여긴다. 부사도 실사로 간주해야 한다. 여섯 가지 문장 성분 중의 하나인 부사어가 되어 수식 기능을 한다. 실질 의미를 가진 성분이 아니면 수식어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대사를 포함하는 사전은 엄밀한 의미에서 ‘허사사전’이라고 할 수 없다.

2. 副詞와 連詞(접속사)를 설정해 두고 介詞(전치사) 기능까지 인정한 경우도 있으나, 반문의 문장에 쓰인 것을 가지고 부사라고 한 경우는 실사인 대사에 귀속되며, 연사는 조사에 해당하는 일부를 곱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조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焉’은 또 兼詞가 될 수 없다. 겸사로 지칭한 경우는 대사로서 ‘그’라는 지시의 의미를 가지고 강도의 차이로 ‘之’와 대립된다. 고대한어의 기본 통사 형식에서 목적어는 전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술어+목적어’가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 관계 속에는 여격과 대격 이외의 많은 것들이 포함

된다. 영어에서 전치사가 나타내는 각종 관계나 한국어에서의 조사(토씨)가 나타내는 각종 관계가 고대한어에서는 대부분 ‘술어+목적어’의 결합에 의해서 만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焉=於(于)[개사]+之(此, 是)’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焉’이 ‘之’와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장소를 나타내는 개념인 ‘거기’를 지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개사로서의 ‘於(于)’와 같다고 여긴 경우는 문맥 파악의 오류로서 조사에 귀속시킴이 옳다.

3. 虛詞 영역에 속하는 ‘焉’의 기능은 助詞뿐이다. ‘焉’에 하나로 관통되는 기능은 조략하게 말하면 ‘강조’이며, 자세히 말하면 문법 단위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앞에 오는 말이 語義의 초점이 되는 부분임을 나타내는 ‘어기조사’이다. 그러므로 놓이는 위치에 따라 문중과 문말의 기능을 달리 여길 필요가 없다.

도치의 표지로 여겨지는 경우조차도 강조의 조사 성격을 가지고 쓰였을 뿐 도치된 말임을 표시하는 격 표지로서의 성분은 아니라고 여긴다. 강조의 기능을 가짐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통사 성분 가운데 술어 앞에 오는 의미상의 목적어 앞에도 놓이지만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조’라는 한 가지 기능으로 일관된다. 술어와의 의미 관계상 목적어로 여겨왔지만 주어도 ‘受事’가 될 수 있고 목적어도 ‘施事’가 될 수 있는 고대한어의 통사적 특징에 의하면 ‘주술’ 형식으로 이해하여도 文意를 해치지 않는다는 기술이 가능하다

‘焉’의 조사 기능은 대사의 허화에 의한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이에 근거하여 뿌리를 같이하는 동일한 음성기호에 하나의 명칭을 부여하기로 한다면 ‘대사’라는 이름 하나에 포괄할 여지도 있게 된다. 동일한 음성 상징에 가리키는 내용이 있고 없음이라는 간단한 차이로 압축되기 때문이다. 지나친 단순화의 패러다임으로 여겨질는지 모르지만, 현대한어의 ‘這個’나 ‘哪裏’ 같은 의문대사의 기술 방식을 참고하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이 試論으로서 주요 결론이다. 핵심 근거는 언어의 본질이다. 언어

는 음성상징이며 단일의 음성 표지에 단일의 의미 결합을 본질로 한다. 이의 실질적인 배경은 언중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음성표지 간의 변별 능력이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를 갖는다는 것도 ‘langue’로서의 언어적 기능과는 맞지 않고 동일한 품사 안에서 여러 개의 의미항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동일한 단어의 개별 의미를 여럿으로 나누어 두뇌 속에 저장하는 방법으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焉’의 實詞 기능에 해당하는 대사이건 虛詞 기능에 해당하는 조사이건, 이것이 다른 單語나 句와 同義 또는 類義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은 ‘焉’의 복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어휘와의 의미의 조합 및 문맥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문법적인 기술과 비문법적인 기술에 대한 경계는 문법 연구자 각각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형태와 기능, 통사 형식 내지 통사상의 특징 차이에 의하지 않은 기술은 엄밀한 의미에서 문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여긴다.

서구 언어에서 ‘문법화’라 이르고 대체로 ‘허화’와 동일시하는 언어의 변화 규칙과 단어 자체의 의미의 虛·實을 근거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면서 부단히 축적되어 왔다. 그런데 언어의 본바탕은 문법화가 아니며 공시대의 측면에서 보면 형태와 기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공시대 속에 섞여 존재하는 통시적 변화에 의한 한 단어의 의미의 누적을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필요 이상의 허화 내지 변화 탐색이 갖는 폐해는 언어의 본질 속성에 대한 곡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단어 의미의 통시적인 변화를 인정하여 허화 또는 새로운 의미항의 출현으로 여기고자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중들이 어떠한 사실을 의식하고 있느냐의 여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립어의 특성이 강한 고대한어는 탈문법화 지향의 관찰 또한 절실하다고 여긴다. 굴절이나 첨가 요소가 없는 언어의 문법 내용이 이들 요소가 갖추어진 언어보다 더 복잡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이 필요하다.

제현의 질정을 기다린다.

<參考文獻>

- 《論語》·《孟子》·《詩經》·《楚辭》·《書經》·《禮記》·《春秋左氏傳》·《國語》·《戰國策》·諸子百家書·《史記》·《漢書》 등.  
王海棻, 趙長才, 黃珊, 吳可穎 共編, 《古漢語虛詞詞典》, 北京大學出版社, 1996.
- 《古代漢語虛詞詞典》, 商務印書館, 1999.2. 초판[2001.8. 第4次 인쇄].
- 《辭源》, 商務印書館, 1987.10(香港第1版), 1989.
- 袁仁林, 《虛字說》(1710), 中華書局, 1989.
- 劉淇, 《助字辨略》(1711), 臺灣開明書店, 1979.
- 王引之, 《經傳釋詞》(1798), 世界書局, 1970.
- 倪志傑, 《論孟虛字集釋》, 臺灣商務印書館, 1981.
- 楊伯峻外, 《文言常用虛詞》, 湖南人民出版社, 1983.
- 鄭尊外, 《古漢語語法學資料彙編》, 文海出版社, 1972.
- 馬建忠, 《馬氏文通讀本》(1898), 呂叔湘·王海棻編, 上海教育出版社, 1986.
- 劉誠·王大年, 《語法學》, 湖南人民出版社, 1986.
- 王力, 《漢語語法史》, 山東教育出版社, 1990.
- 邵敬敏, 《漢語語法學史稿》, 上海教育出版社, 1991.
- 楊伯峻, 《文言文法》, 中華書局, 1982[1987].
- 楊伯峻·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語文出版社, 1992.
- 孫良明, 《古代漢語語法變化研究》, 語文出版社, 1994.
- 廖序東, 《文言語法分析》, 上海教育出版社, 1981.
- 李林, 《古代漢語語法分析》,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 許仰民, 《古漢語語法新編》, 河南大學出版社, 2001.
- 許璧, 《中國古代語法》, 新雅社, 1997.
- 易孟醇, 《先秦語法》, 湖南教育出版社, 1989.
- 程湘清主編, 《先秦漢語研究》, 山東教育出版社, 1992.



- 程湘清主編, 《兩漢漢語研究》, 山東教育出版社, 1985.
- 陳望道, <試論助辭> 上·下, 《陳望道語文論集》, 上海教育出版社, 1947.
- 呂叔湘 外, <助詞說略>, 《中國語文》, 1956, 6.
- 안기섭, 《新體系 漢文法大要-先秦·兩漢 시기》, 보고서, 2012.9.
- 안기섭, <古代漢語 被動義 전달체계와 관련 詞의 詞性>, 《중국어문론집》 15, 2000.10.
- 안기섭, <古代漢語 助動詞 부재에 관한 연구>, 《中國語文學論集》 36, 2006.2.
- 안기섭·정성임·박상령, <古代漢語 문장성분과 품사에 관한 논의(1)>, 《中國人文科學》 32), 2006.6.
- 안기섭·정성임, <先秦-兩漢의 품사 체계 新論 -품사 분류의 한계와 효용을 중심으로->, 《中國學研究》 37, 2006.9.
- 안기섭·정성임, <古代漢語 ‘乃·則·且’의 副詞性>, 《中國語文學》 48, 2006.12.
- 안기섭·정성임, <古代漢語 ‘술어+목적어’의 의미 유형 기술에 관한 성찰>, 《中國人文科學》 37, 2007.12.
- 안기섭, <古代漢語 助詞 ‘之’의 機能에 관한 新論>, 《中國人文科學》 40, 2008.2.
- 안기섭, <古代漢語 實詞類 품사 분류의 非文法性에 관하여>, 《中國人文科學》 43, 2009.12.
- 안기섭, <고대한어 ‘於(于)’의 介詞性에 대한 의문 -先秦·兩漢 시기를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 50, 2012.4.
- 안기섭·김은희, <고대한어 ‘而’의 連詞性에 대한 의문 -先秦·兩漢 시기를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 51, 2012.8.
- 안기섭, <古代漢語 ‘者’의 構造[結構]助詞性에 대한 의문-先秦·兩漢 시기의 기본 통사 형식에 근거하여->, 《中國言語研究》 42, 2012.10.

## &lt;中文提要&gt;

這篇文章的核心結論如下：

1. 古代漢語“焉”的詞性，除了“鳥名”，可以歸納為代詞和助詞。代詞是實詞，助詞是虛詞。代詞主要根據意義可以分為指示和疑問。雖然所指示的內容不一樣，但是指示方法只是有一個意義的詞。指示代詞“焉”的詞義大體相當於現代漢語裏的“那個”。疑問代詞“焉”的詞義相當於現代漢語“哪裏(哪兒)”這個詞。(注意這些不是完全相同的詞彙。)被指示的內容差異往往由搭配的其他詞彙或者上下文來表現。

2. 有的虛詞詞典以為“焉”這個詞具有副詞·連詞或者兼詞。古代漢語“焉”根本沒有這些詞性。我們該說：代表反詰的不是屬於副詞，就屬於疑問代詞。說代表條件結果關係的連詞原來屬於語氣助詞。古代漢語“焉”又絕對不是兼詞。因為“於(于)”不是介詞就是助詞，所以我們不能說“焉”有“於+之”的意思。從來以為倒置的標識的“焉”也屬於強調性助詞的範疇。

3. 屬於虛詞的“焉”字只有語氣助詞的功能。粗略地說，“焉”字的功能就是表示強調，詳細地說，它的功能就在表示說話者的語義焦點。對於這種功能的來源是代詞的虛化，沒有意見分歧。不關句子中的位置，句中和句末的“焉”都是語氣助詞。我們也可以把上下文表示的微細差異總括在強調性語氣功能裏面。

得到的上述結論根本以語言的本質屬性為依據。語言的唯一共通本質就在義詞基本上是一個語音和一個意義的結合。說話者和聽話者之間溝通只能在兩者共同認知的詞義範疇內具現。勿論“焉”的詞性如何，個別詞性不能具有多數詞義，只有一兩個詞義。所以我們不可把“焉”字的意義分為幾種。我基本上以為不根據形態·功能·句法結構的不同，就不能劃定詞義的分界。

詳細內容請看上文。

주제어 : 古代漢語, 焉, 代詞, 助詞, 語氣